(시작)

(그림1: 평화로운 마을 전경 점차 까만 색으로 페이드아웃)

아펜도스 마을은 평화로운 빛의 가호가 내려진 많은 마을들 중 하나다. 알렌은 그런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냥꾼이었다. 그러던 어느 날, 마을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 앉게 된다.

(그림2: 멀리서 불타고 있는 마을 실루엣 그걸 바라보는 주인공의 뒷모습)

알렌 "우리 마을이 왜 불타고 있는거지..?"

(그림3: 긴장감 있는 분위기 바닥에 있는 핏자국과 주인공그림자만 보여줘도ok)

난장판이 된 집 앞에 도착한 알렌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늘 가지고 다니던 석궁을 단단히 쥐고 주변을 살폈다. 불쌍한 알렌! 그는 이미 잔인한 운명으로 한걸음 다가서고 있었다.

(그림4: 난잡한 집안 죽은 부모님 모습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됨 시체 있을 시 대사 수정)

그가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다. 괴물들이 이곳 저곳을 뒤지며 으르렁거렸고, 어떤 것을 씹어 삼키느라 정신이 없었다. 분노에 찬 알렌은 석궁을 조준해 괴물들을 하나씩 죽여 나갔다. 마지막 괴물을 베어낸 후 그는 묵묵히 바깥을 향해 돌아섰다.

(그림5: 복수를 다짐하는 알렌의 모습)

나약한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. 오직 불타오르는 증오가 그의 가슴에 자리잡아 방아쇠를 당겼다. 그는 이를 악물고 어느새 주위를 둘러싼 괴물들의 목을 노려봤다. 그 길의 끝에,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채로...끔찍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.

(보스전)

알렌 \*\*“네놈 짓이군. 빌어먹을 것들을 버려 둔 게.”\*\*

Dr. \*\*"공포를 찾는 방랑자가 또 겁없이 기어들어왔구나. 그래, 내가 친히 풀어준 죽음이 마음에 드는가?\*\*

알렌 \*\*"왜 그런 짓을 한거지?"\*\*

Dr. \*\*"재미! 그리고 사랑! 파괴가 내 친구이며 절망이 내 무대이기 때문에. 인간들의 달콤한 비명, 불안에 잠겨 떨리는 눈동자까지...너무나 가련하고 아름답지 않은가! 나를 원망하라, 복수심에 찬 이방인이여! 차오른 네 절망과 고통은 지루함에 한숨짓던 나날들의 새로운 기쁨이 될 지니."\*\*

알렌 \*\*"지긋지긋한 놈! 매일 밤 널 마주한 지금 이 순간을 상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. 감히 바라건대, 시위에 매긴 화살이 네 심장을 빗나가지 않기를!"\*\*

(보스전 종료: 승리시)

Dr. \*\*"하하...통쾌한 복수로다! 네 화살이 나를 죽였다. 그러나 가소롭구나, 변두리의 영웅이여...작은 승리에 취해 세상의 혼돈을 외면하겠나? \*\*

알렌 \*\*"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, 죽음조차 너의 파멸을 잊을 것이다. 나의 복수는 네 숨을 끊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. 너의 끔찍한 죄악들도 함께 지옥으로 처박고 흔적을 모조리 불태울 테다!"\*\*

Dr. \*\*"네가 죽는 날까지 넌 오늘의 승리를 기억하겠지.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! 너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영원히 불멸하리라! 아아. 난 참으로, 운이...좋구나..."\*\*

(보스전 종료: 패배시)

알렌 \*\*"여기서 쓰러지다니, 나의 분노가 부족했단 말인가..."\*\*

Dr. \*\*"증오는 낡아 허물어졌고, 화살은 살가죽 하나 뚫지 못할 정도로 무뎌졌구나. 어리석고 가엾은 자여! 네 덕에 나는 또 하염없이 기쁨을 기다려야 하나니.."\*\*